

키요모토 시장의 연설 (2020년 4월 22일)

현재, 히메지시의 의료 기관은 헌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히메지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진료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스텝 여러분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일단, 바이러스의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는 적극적인 조사를 행하여 농후(직접)접촉자를 특정하여, 자택 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농후(직접)접촉자의 기준은 「동거」「감염대책 없이 진료를 행함」「1미터의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이 있음」등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으로 자신을 방어한 상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직접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히메지시는 양성 환자가 진찰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 의료 종사자 모든 분은 농후(직접)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 환자가 진찰을 받거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육 등 시설의 이용을 거절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의료 기관의 모든 분들은, 자신도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치료에 임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지역의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진료나 간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 만일, 의료 기관의 모든 분들이 주위의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무서워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현재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이 SNS등에 올리고 있는 유언비어, 헛소문의 확산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행정 부문도 확고하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히메지시의 시민 여러분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의료기관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의미를 담아, 히메지성을 비추는 라이트를 파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히메지 성을 볼 때 마다,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모든분에게 감사의 기분을 표현하여 주십시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도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3개의 밀(密)를 피해주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